"윤아언니 눈빛연기 탐나"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한국 레슬링 14년만에 금

내년 수능 올해보다 1주일 늦은 11월13일 시행

수준별 영어 결국 폐지

현재 고교 2학년들이 보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 11월 13일 시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5학년도 수능은 올해(11월 7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11월 13일 목요일에 시행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준별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은 유지, 영어는 폐지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통합 영어 출제 범위는 기존 A형의 출제 과목인 '영어Ⅰ'과 B형의 출제 과목인 '영어Ⅱ'로 한다.

전형 수는 수시 3개(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논술·실기 위주)와 정시 2개(수능·실기 위주)로 축소하고, 어학능 사범·종교계열은 예외를 인정했다. /김현기자

<재미> <교육>

암기력 97.5% 기적 일군 '2대8'

영어공부 교재 '이인혜 학습기'로 대박행진 정성은 위버스마인드 대표

교육과 게임만큼 상극이 또 있을까.

수많은 업체들이 에듀테인먼트(교육+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도전했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이인혜 학습기'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뇌새김' 시리즈를 만든 위버스마인드를 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30만~1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인데도 올 1분기에만 5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 업체 게임빌 창업 멤버 출신 정성은(37·사진) 대표에게 성공 비법을 들어봤다.

"에듀테인먼트에 도전했던 수많은 업체들이 학습에서 재미를 찾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재미 요소를 너무 강调한 나머지 학습 효과를 떨어뜨려 고객들에게 외면받았죠. 재미있는 게임보다 몰입도 높은 게임이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교육 콘텐츠도 성취 경쟁·수집욕 등의 자극을 통해 '중독' 같은 몰입감을 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기자 son@

세상에 재미난 공부 없지만
게임과 같은 중독성 승부수
좌우뇌 동시에 자극 뇌새김
전국 50개 학교서 교재채택

역시 게임업체 출신다운 답변이다. 단순히 재미있거나 교육 효과가 높은 것만 가지고는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힘들다는 것을 게임 본부장 경험을 통해 정 대표는 깨달았다.

정 대표가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덕분에 교육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 황금비가 '8대2(교육 80%, 재미 20%)'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정 대표의 설명처럼 뇌새김 시리즈는 재미를 강조한 다른 교육 콘텐츠처럼 화려하지 않다. 어휘나 회화 문장을 상황에 적합한 단순한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하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와 그림에 반응하는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시너지를 낸다.

"뇌새김 시리즈로 공부하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찍듯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체 실험에서 97.5%라는 놀라운 암기결과를 보였을 정도죠. 학생들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구입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뇌새김 시리즈는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몇 안 되는 학습기다. 현재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정규 교과 또는 방과 후 학습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 한 중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사용하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교육 3주 후에 본 시험 성적이 평균 80점을 넘었죠. 시험 점수 덕분에 칭찬받은 것이 처음이라며 활짝 웃던 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09년 2월에 설립된 위버스마인드는 5년여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 벤처로 성장했다. 2011년 65억원, 2012년 100억원 등 매년 30% 가까이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일본어에 이어 다음달 중국어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올해 예상 매출 180억원 달성도 너끈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는 5초 안에 관심을 끌고 5분 안에 재미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후 50분 후에 쉽게 끝내기 어렵겠다는 확신을 주면 대박 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뇌새김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서울 코엑스와 광화문·강남 교보문고에 마련한 체험센터에서 5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외국어정복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국방기자 kmles@metroseoul.co.kr

박 대통령 '복지 후퇴' 직접 해명

**26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기초연금 국고 지원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애초에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 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야당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민준기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여야 수뇌부의 고민은 여전하다. 23일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각각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도중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상임위가 '전쟁터'

민주, 정기국회 전면참여 결정 · 전국 순회 장외투쟁도 병행키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 투쟁에 전념해달라며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결정하고 여당과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원외투쟁 이외의 일로는 국회를 떠나지 말고, 잠도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해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전병헌 원내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원내 투쟁을 이끌 것을 제안한 뒤 "원내대표부터 본부장실에 침낭을 갖다놓고 24시간 비상 체제로 국회 운영을 지휘하면서 여당과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 협상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원외투쟁도 강화돼야 한다. 전국의 원외지역위원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쟁'의 기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전국 순회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및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국민 연대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시작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54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3주 동안 사실상 공전돼온 정기국회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mr@metroseoul.co.kr

가을 낚는 강태공들 추분인 23일 낚대천 하구인 강릉 남항진 방파제에서 강태공들이 감성돔과 전어, 숭어 등을 낚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11월부터 춥고 12월엔 큰눈 올듯

올겨울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 1개월 전망'에 따르면 11월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12월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됐다.

11월 평균기온은 평년(4~12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31~80㎜)보다 적겠다고 내다봤다. 본격적인 추위는 12월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고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예측했다.

12월 기온은 평년(-3~6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15~42㎜)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은 초반에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초·중·고생 4만6104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다"

초·중·고교생 2.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3일 올해 5~7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 211만9962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정서·행동 발달상 문제로 위험 수준이 높아 전문기관 상담 등을 의뢰해야 하는 우선관리군이 4만6104명(2.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은 7.2%, 15만2640명으로 나타났다. 우선관리군은 초등생 0.7%, 중학생 3.5%, 고교생 3.0%로 중학생 비율이 높았다. 관심군은 초등학생이 3.4%, 중학생이 11.0%, 고교생이 9.6%로 나타났다. /김유리기자

"해직자 가입 허용 규약 한달내 안 고치면 법외노조"

최후통첩 받은 위기의 전교조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고용부는 23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올해 5월과 6월에도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한인준기자 mjlee@metroseoul.co.kr

"명절 찌로 풀어요 23일 경기 수원 비드바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며 명절 피로를 풀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셀프 훈장' 9개 자진반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장 9개를 정부에 자진 반납했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취소된 훈장 9개를 지난달 3일 반납했다. 2006년 훈장이 취소되고 나서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자신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반납을 거부해왔다. /한편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벤 존슨 서울올림픽 육상 100m 금메달

1988년 9월 24일 서울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결승이 펼쳐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LA올림픽 4관왕의 칼 루이스와 로마선수권에서 그를 꺾은 벤 존슨이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와 함께 10초도 안 된 사이 결과는 존슨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9초79의 세계신기록.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 소변검사 결과 존슨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세계를 경악시켰고 금메달은 박탈되어 루이스에게 돌아갔다. 존슨은 그 후의 국제대회에서도 금지약물 복용이 드러나 육상계에서 영구 제명되고 말았다.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부산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 부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사고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안전모니터봉사단 100여 명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찾아내 안전 모니터링 제보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 모니터링 제보 활동 요령 등 실무 교육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감시원 운영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모니터봉사단은 1999년에 발족한 민간 봉사단체로 부산지역에는 16개 구·군에 580여 명의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거제행 시외버스 예매제

부산 사상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과 장승포로 가는 시외버스 예매제가 23일부터 시작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5일 거제 고현-부산 사상행 시외버스 예매제에 이어 이날부터 부산 사상-거제 고현·장승포행 시외버스 예매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발 예매는 기존 거제 고현발 시외버스 예매제와 동일한 출발일 일주일 전부터 시행하며 출발일 당일 현장 발권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70%(28석)에 해당하는 좌석에 대해 현장·인터넷 예매가 이뤄진다.

이번 인터넷 예매제 시행과 함께 신평·김해공항 경유 노선의 운행 시간 및 횟수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자세한 운행 시간 확인과 인터넷 예매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세소식란'이나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안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busterminal.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군의 날 맞이 이벤트

육군 53사단은 오는 25일 울산역,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53사단은 현장에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국군의 날 축하와 국군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 시민들에게 건빵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작성된 메시지는 3m 높이의 '감사희망나무'에 게시되고 행사 종료 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지역인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전시된다.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형권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9865

2001년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례00 / 739300

마을만들기 상품 브랜드마케팅

부산시 '해품선' 개발…다음달 본격 출시

부산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브랜드 마케팅에 나섰다.

시는 마을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체성과 마을별 생산 제품의 특성을 아우른 공동 브랜드 네임 '해품선'을 개발, 다음달부터 본격 출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 브랜드 개발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마을만들기 상품 공동 브랜드 해품선은 지난 6월 개발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7월 초 용역에 착수해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공동 브랜드 네임을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 중이며, 10월 초 최종 공동 브랜드가 개발될 예정이다.

해품선은 바다를 품은 고귀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생산되는 상품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별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솜씨로 제품을 생산하지만 내세울 브랜드가 없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로가 막힌다는 지적을 받아 공동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공동 브랜드가 개발되면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마을 자립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공동 브랜드가 최종 확정되면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기업홍보관 영상 홍보, 공동 브랜드 전판 부착,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서대와 행복마을 브랜드 마케팅 지원 업무 협약을 비롯해 한국표준협회와는 행복마을 품질관리 재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브랜드에 걸맞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체험 및 순회 마케팅 등 마을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공동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완복 기자 ssa@metroseoul.co.kr

/뉴시스

이 산청약초가 지리산 힐링의 집! 지난 22일 150만여 본의 지리산 자생 약초와 희귀본이 전시돼 있는 경남 산청엑스포 약초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약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부산영어방송 중국어 방송

부산·경남에 중국 소식과 지역 뉴스 및 생활정보를 전하는 중국어 방송이 열린다.

부산영어방송은 내달 하순 가을 개편부터 부산·경남에 살고 있는 2만 5000여 중국인을 위해 중국어 방송을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재)부산영어방송(FM 90.5MHz)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다국어 방송 허용 의결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하루 1시간씩 지역 뉴스와 생활정보 및 중국 소식을 전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 매일 밤 9시부터 1시간씩 방송할 예정이다. 2009년 개국 후 24시간 영어로 방송하는 부산영어방송(www.befm.or.kr)은 지역의 다국적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위한 중국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아카펠라 음악회

산단공 부산지사 내일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는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아카펠라 음악회'를 개최한다.

산단공 부산지사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6시 녹산희망공원 앞 갑을녹산병원에서 아카펠라그룹 '메이트리'를 초청해 현장을 찾아가는 아카펠라 음악회를 개최한다.

산단공은 지난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공동 사업자로 선정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현장을 찾아가는 산업단지 문화순회공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산단공 양기주 부산지사장은 "그동안 회색빛 공장으로 인식되던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을 입혀 즐거운 산업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단공 부산지사는 행복산단 조성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문화센터를 설치해 직장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호회를 결성해 매주 수요일 무료 통기타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8일에는 제3회 부산권 산단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뉴시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8억 부과

부산시는 올해 2기분 수질 및 대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5만5190건에 총 238억3565만2750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4만1410건 51억1782만7400원, 자동차 31만3780건 187억1782만5350원 등이다.

이 중 시설물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은 부산구치소가 1억5356만1680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으로 배기량이 많은 차량에 23만3960원이 부과됐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경유 사용 자동차 및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음식점·병원·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됐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 뱃물이용시설 및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악취발생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자금 지원,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금정산 북문 일구 생태 복원 등에 총 2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보전 사업 지원을 늘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카메라에 담는 빅토리아 연꽃 23일 경남 함안군 삼림연꽃단지에 빅토리아 연꽃이 활짝 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시민들이 빅토리아 연꽃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함안군청 김해인 주무관 제공

원산지 표시 위반 경남 > 부산 > 울산

경남 농관원 추석맞이 특별단속…42곳 입건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지난 설에 이어 경남에서 적발된 업체가 부산과 울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은 지난 17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독일산 돼지 뼈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 양념갈비로 판매한 업체 등 40곳과 양곡의 생산 연도, 도정 일자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쌀과 떡류, 잡곡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과 쇠고기 이력제 표시 위반 업체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식품업체에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적발 내역으로는 경남 22곳(2곳은 양곡의 생산 연도 허위 표시)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3곳, 울산 7곳의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입건됐다.

이어 경남 24곳(2곳은 쇠고기 이력제 표시 위반), 부산 18곳, 울산 3곳 등 총 86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신고 참여로 시민의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부산시 단독 'MICE 해외로드쇼'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서

부산시가 중국 칭다오시에서 'MICE 해외로드쇼'를 단독 개최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칭다오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지자체 단위로는 첫 MICE 해외로드쇼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단독 해외로드쇼는 현지 주요 기업 내 MICE 담당자와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해 실질적 MICE 유치를 늘리고 MICE 목적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알려 중국 인센티브 여행단 등 중국 MICE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로드쇼에는 칭다오시 공상연합회 관계자와 칭다오시 여유국, 상무국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행사는 24일 참가자 간담회와 사전 세일즈 콜에 이어 25일에는 비즈니스 상담회와 부산 MICE 나이트(BUSAN MICE NIGHT)를 개최하고, 26일 관심 업체 사후 방문 상담 등 고객 지향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 개최지인 칭다오시는 인구 871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네 번째 도시로 하이얼, 하이신 등 중국 글로벌 기업 본사와 암웨이, 바오첸과 같은 다국적 기업 지사가 자리 잡아 향후 인센티브 관광단과 국제회의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 동아리 활성화 토론회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점점 사라져가는 대학 동아리 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문화재단 국제리더십학생협회(AIESEC)와 부산대는 오는 27일 오후 6시 부산대 국제언어교육원 대강당에서 2013 부산문화 릴레이포럼 3차 토론회 '대학 동아리 소통을 통한 활성화 방안 찾기'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2005.41 (+3.83)	527.07 (-0.04)

금리	환율
2.80 (-0.05)	1075.00 (-8.50)

다중 대출자 노린 '통대환 대출' 주의보

여러 개의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주겠다며 사채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통대환 대출'에 대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통해 신용 세탁을 한 채무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채로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뒤 은행 대출은 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카페를 통해 다중 채무자에게 접근,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을 걸고 사채로 기존 대출을 갚아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기자

연핑이야 침대야?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빅마켓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미국 인크레더블사의 동물인형 침대 커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정금리 가계대출 감소세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6월 말 2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정기자

위기의 동양그룹, 오리온도 외면

'동서' 담철곤 회장 부부 1조대 CP 상환자금 지원 거절

재계 38위 동양그룹이 침울 위기에 처했다.

'오너가의 희망'인 동서그룹 오리온이 공식적으로 지원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다 채권단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리온은 23일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1000억원 상환을 위해 오리온 대주주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12.91%)과 이화경 부회장(14.49%)이 보유한 오리온 지분 15~20%를 담보로 5000억~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을 마련해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담 회장 부부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으면 ABS를 5000억~7000억원 정도만 발행해 C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과 아내 이혜경 부회장 부부, 오리온의 담 회장과 이 부회장 부부는 추석 때 동양그룹의 만기 도래 CP 상환 지원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담 회장 부부가 15~20%에 이르는 오리온 지분을 담보로 내놓았다가 오리온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도 추가 지원 '난색'

동양그룹 측은 오리온의 지원 불가 발표에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놨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유동성을 CP나 회사채, 단기 골자금 등으로 충당해온 데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추가 자금 조달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양그룹은 투자자에게 판매한 CP 1조1000억원 외에 채권단 보유 여신도 9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23일 서울 중구 동양증권 로비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채권단도 동양에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쉽지 않다. 오리온이 동양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부도 처리될 수 있어 추가 지원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email]@metroseoul.co.kr

'LTE 달리기' 선수교체 왜!

"지금보다 빠른 데이터 속도 정말 필요해?"

무선 데이터 속도가 유선 데이터(광랜 100Mbps)보다 더 빠른 시대가 왔지만 과연 이 같은 무선 데이터 속도를 이용자들이 제값을 주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데 광대역 LTE 나 'LTE-A'로 갈아탈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우리가 더 빠르다'라는 속도전 경쟁이 한창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 전국 서비스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 이어 KT는 지난 14일 오후 9시를 기해 광대역 LTE 상용 서비스 개시로 맞불을 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내년 3월에나 서비스할 수 있는 광역시의 경우 LTE-A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LTE-A는 멀티캐리어(MC) 기술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두 가지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주는 캐리어 어그레이션(CA)을 이용해 통신 속도를 끌어올린 서비스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CA 모듈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최대 150Mbps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LTE 가입자가 굳이 새 단말기를 구입해 LTE-A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존 서비스 충분히 빠른데
이통업계 끝모를 속도 경쟁
광대역 또는 A 갈아탈수록
더 비싼 '요금 부메랑' 주의

실제로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 고속도 고성능을 느끼려던 일부 이용자들은 데이터 요금 폭탄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직장인 김인성(30)씨는 자신이 쓰던 LTE 휴대전화 단말기를 부모님께 드리고 최신형 LTE-A 단말기를 구입했다. 이를 이용해 다양한 동영상을 보고 뉴스를 시청하던 그는 다음달 날아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기존 LTE 단말기를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형태로 이용했는데 데이터 이용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LTE에서 LTE-A 휴대전화 단말기로 바꾸며 데이터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기존 주파수 대역의 폭만 넓힌 광대역 LTE 역시 기존 LTE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최대 100M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통사가 빠른 데이터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 이용을 유인해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용자들 스스로가 과도한 데이터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사진 전문가 돼 볼까 23일 삼성전자가 사진 강좌를 듣고 촬영 실습을 할 수 있는 삼성 스마트 카메라 스튜디오 를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 6층에 열었다. /삼성전자 제공

체구 작아도 빵빵 터지는 '무선 스피커'

경품 IT리뷰 LG전자 NP3530

음향기기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이 줄이다.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NP3530은 줄 걱정을 없앤 무선 제품으로 삼각 원통 모양의 아담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길이 19cm 측면 6.5cm로 야외 나들이 때 갖고 다니기 좋다. 근거리무선통신(NFC)과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음악을 연동해 감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리모컨처럼 사용된다.

음질은 예상보다 뛰어났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풍부한 사운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데 어울려 보인다. 통화 기능도 지원되고 배터리 용량은 최대 충전 시 18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다만 무선 접속 환경이 안 좋으면 음악 재생이 불안정할 수 있고 전용 앱을 일일이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격은 18만원대로 출력이 높은 NP6530 모델은 40만원대다.

/정은희기자 unique@

외국인 누적 투자액 반년만에 순매수로

최근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진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주식 누적액이 반년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여건상 당분간 코스피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달러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한 연간 누적 액수는 지난 16일에 3억3510만 달러 순매수로 돌아서고 17일에는 7억1603만 달러 순매수로 불어났다.

외국인의 누적 투자액이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5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19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8조원 넘게 사들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부각되고 원화 주가 절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사자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FOMC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10~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후불제 폰 개통’ 문제많네

통신연체자·신불자 불법 가입 | 휴대폰깡 등 부작용

통신요금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후불형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불법 사례가 '휴대전화깡'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연체자·신용불량자에게 작업비를 요구한 뒤 등급을 올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신요금 연체의 경우 이통 3사 중 연체가 없는 이통사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이통 3사 모두 연체가 있는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등급 조정 작업을 통해 할부 개통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통신요금 연체 100만원당 5만원과 작업 수수료를 받고 등급을 재조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99만원의 통신요금 연체가 있다면 5만원, 101만원의 연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10만원을 내면 연체를 무시하고 후불제 요금제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용자들이 일시적인 빚 탕감 등을 위해 되파는,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렇게 팔아버린 스마트폰과 명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외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렇게 명의가 넘어간 휴대전화는 후불형 소액결제의 경우 소액 결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수백만원의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통신요금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작업 수수료만 낸다면 1~2일 내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사 관계자는 "전산 작업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노년 병원비 덜어주는 효자

건강 문제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노인들은 소소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된다. 병원비 걱정으로 작은 병을 방치하다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AIG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은 노년층을 위한 노년 전문보험으로 출시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는 시청각질환 및 인공관절 수술비는 물론 각종 중대 질병을 모두 보장해준다. 골절·화상의 경우 지급률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병은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5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백내장·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 수술비는 5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는 3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60세 남자 기준 월 2만50원이며 50~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432-0166)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홈페이지(www.aig.co.kr)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K2 마조람3 다운재킷 출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아웃도어 브랜드 K2의 헤비 다운재킷 마조람3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제조업 4분기 BSI 악화

●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올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9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4분기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 사정(30.3%)이 꼽혔다. /장윤희기자

국정원 '화이트 해커 대회'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보안전문가(화이트 해커)를 선발하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본선대회를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한다. 일반부에는 총 상금 5000만원과 국방부 장관상을, 청소년부는 총 상금 3000만원과 국가정보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박상훈기자

제일모직 '패션' 팔고 소재 올인

삼성에버랜드에 1조대 양도 후계구도 정리수순 해석도

제일모직이 59년을 지켜온 패션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제일모직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패션 사업을 삼성에버랜드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양도가액은 1조500억원으로 12월 1일자로 패션 사업의 자산과 인력 등을 모두 이관할 계획이다.

제일모직은 패션 사업 양도로 확보한 자금을 전자재료·화학 등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해 초일류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일모직은 이미 소재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후계 구도를 위한 정리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에버랜드의 사업 확대는 이 부회장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회장의 자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사장이 야심차게 패션 사업을 추진해온 점에 비춰 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석지원기자

저소득층 관절염 줄기세포 무료치료

연세사랑병원-엄홍길 휴먼재단 '카티스템' 연골재생 후원 캠페인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인 '줄기세포 치료'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본격적인 후원 활동에 나섰다.

◆무릎 퇴행성관절염 조기 진단 줄기세포 치료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아 생기는 질환으로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손상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연골이 없어져버림으로써 무릎이 맞닿게 될 때 그 마찰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무릎관절 내 연골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이 불가능한 연골의 특성으로 염증이 나타난 무릎관절 부위를 다듬은 뒤 인공으로 만들어진 관절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진단을 통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초·중기 때 발견해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관절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조기 진단하는데 만약 조기 진단을 통해 무릎관절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로 나타났다면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줄기세포란 아직 분화하지 않은 어린 세포로,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관절 병변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로 분화시켜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환자의 신체(자기) 또는 타인의 탯줄(타가)에서 추출 가능하다.

산악인 엄홍길(왼쪽) 대장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엄홍길휴먼재단-연세사랑병원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최신 치료법인 만큼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은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최근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후원을 주관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파트너인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후원하게 되며 후원 대상자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줄기세포 치료는 카티스템을 이용해 도포하는 방법으로 카티스템은 모든 성인 연령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는 주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침습 시술을 통해 시술 시간은 30~60분 정도, 입원 기간은 2~3일로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이 적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줄기세포 치료는 그 효과가 국내외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연참을 통해 신청

최고 명의들의 맞춤 건강강좌

내달 4일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4일 오후 1시부터 병원 김옥길홀과 대회의실 등 2개 장소에서 '백세 건강 이야기 함께 합니다'와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강좌'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옥길홀에서 개최되는 '백세 건강 이야기 함께 합니다' 강좌에서는 뇌졸중, 오십견, 관절염 한국인에 많이 발생하는 6대암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강좌'에서는 건강한 분만, 태아 프로그래밍, 모유수유, 성조숙증, 청소년 우울증, 생리불순 등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강연은 이화의료원을 대표하는 명의들이 맡았으며 강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백편 부작용 시계가 제공된다.

또 이대목동병원은 각 건강강좌 중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는 건강 검진권, 초음파 촬영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정확한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힘써 온 이대목동병원의 지난 20년은 고객의 사랑으로 함께 이룬 역사"라며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대목동병원 최고의 명의들과 함께 하는 강좌를 마련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metro Russia

Метеорит породил новую религию

metro Sweden

mycket mer pengar får nboken

스웨덴 직장인 평균월급 무려 506만원

스웨덴 직장인들이 신났다. 스웨덴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올해 2.5% 늘었기 때문. 게다가 내년에는 그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의 기쁨이 배가되고 있다. 스웨덴 직장인들은 월평균 2만9800크로나(약 506만 9000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임금 인상분은 매달 약 750크로나(약 13만원)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정책조정청 관계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 스웨덴이 수출주도형 요인으로 강력한 통화 가치와 세금이 오르지 않은 점을 꼽았다"

metro Brazil

UFRJ vai gerar energia para concessionária

대학 주차장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이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태양광 나무'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브라질 환경부의 태양광 에너지 주차장 건립 허가 결정에 따른 것. 리우주 당국은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에너지 발전에 선구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감안, 1년에 700만 헤알(약 32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태양광 나무'는 캠퍼스 내 야외 주차장 지붕을 태양전지판으로 만들며 대학의 주요 에너지 동력원이 될 전망이다. 태양전지판 크기는 20제곱미터(㎡)이며 5개당 100㎾의 전력이 생산된다.

운석 앞 머리 조아리는 이들

"돌 속에 지구 종말 신비한 힘과 신의 계시 숨겨져 있다" • 러시아에 신흥 종교집단 출현

러시아에 면발을 신봉하는 '스파게티 괴물교'에 이어 운석을 신봉하는 신흥 종교 집단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운석교' 신도들은 지난 2월 첼랴빈스크주 체바르쿨호수에 운석우(隕石雨)가 내린 당시 떨어진 운석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다.

이들은 "운석에 담겨있는 소중한 우주 정보를 통해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며 "시리아 사태도 사전에 예견했다"고 말했다.

첼랴빈스크 운석 교회의 인드레이 브레이비치코 목사는 "뉴에이지 시대의 선봉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상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이제 곧 운석의 힘을 빌어 새로운 시대인 물병자리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비치코 목사는 "지구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운석에 숨겨져 있다"며 "신의 계시가 운석을 통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석이 떨어지기 전부터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스러운 운석을 모실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을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은 체바르쿨호수에 남아있는 운석을 건져내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전달해야 하며 러시아 정교회도 운석 교회를 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석교는 러시아에서 교회로 정식 등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회 측에서 체바르쿨호수의 운석을 건져 올려도 공식적으로 운석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이와 관련, 스바토 필라레테 정교회 신학교의 알렉산드르 코피로프스키 교수는 "러시아 정교회는 이 신흥 집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가지 우습고 귀여운 에피소드로 간주할 뿐"이라고 말했다.

코피로프스키 교수는 "이들이 내세우는 운석이 지구 종말에 대해 암시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이는 해당 교회의 홍보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첼랴빈스크주에는 지난 2월 운석우가 쏟아져 주민 1000여 명이 다쳤으며 파손된 가옥도 수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야 우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Chile

"제발 살려줘요" 북극곰의 비명

칠레인 3000명 자전거 시위

"북극곰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최근 칠레인 3000명이 칠레 남반시에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진행한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이스 라이드(Ice Ride)'로 불리는 평화 시위는 전 세계 115개 도시에서 열렸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해 콘셉시온, 발파라이소, 테무코 등 4개 도시가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칠레 주요 도시에서 열린 이번 시위에는 환경운동가들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가족 단위 시위대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흰색 털옷을 입고 나왔고 페이스페인팅을 이용해 북극곰처럼 얼굴을 하얗게 분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행사를 기획한 마티아스 아순 그린피스 칠레지부장은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대규모 행진은 평화적이고 친밀감이 높은 시위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극은 세계인류유산으로 지정, 환경 보호 구역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북극 지키기' 운동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해를 떠다니는 유빙의 75%가 녹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석유회사들은 북극 생태계를 파괴하며 해년 석유 시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얼음이 사라져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의 생존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드레아 세풀베다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주)콜렉트대부 [2011-서울강남-0084]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Consumer Loan Finance Association 회원번호 A00024

신용대출의 기본은 친절입니다

지금, 전국 10개 지점에서 친절한 루스모를 만나보세요

☑ 인터넷대출 신청 O.K ☑ 지점방문대출 신청 O.K
☑ 모바일대출 신청 O.K ☑ 전화대출 신청 O.K

루스모 수시출금서비스

365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통으로 필요한 자금을 편리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방법과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연 39% 이내 (연체금리 연 39% 이내, 이자외 추가수수료 일체 없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역삼동 705-9 삼흥빌딩 4층) 등록시도 명칭 : 서울시 강남구청(대부업 담당 02-2104-1981)
도봉구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인천시 부평구청, 대전시 대전시청 대구시 중구청, 광주시 동구청 제주도 제주시청 경기도 수원시청

일 오 육 육 땡~땡
1566-1010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루스모 ▼ 지금 검색창에 루스모를 쳐보세요.
www.lusmo.co.kr

'연기 외도'이준·탑 가을 스크린 대결

각각 '배우는 배우다' '동창생' 주연 맡아 액션 열연

남성 아이돌 대표 주자인 엠블랙의 이준(왼쪽 사진)과 빅뱅의 탑(오른쪽)이 올 가을 스크린에서 액션 맞대결을 벌인다.

드라마와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 받은 두 사람은 다음달 24일 개봉될 '배우는 배우다'와 11월 선보이는 '동창생'으로 각각 원톱 주연 신고식을 치른다.

'배우는 배우다'는 '영화는 영화다' '풍산개'에 이어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영화로 배우 탄생의 뒷이야기를 실감 나게 담아냈다. 이준은 단역에서 순식간에 스타가 된 오영의 거만한 모습을 비롯해 현실에 대한 분노, 연기와 배우에 대한 절박한 심경 등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강도 높은 액션신도 소화했다.

이준은 엠블랙으로 활동하기 전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에서 비의 어린 시절인 10대 라이조 역할을 맡아 워쇼스키 감독에게 "슈퍼굿"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정글 피시 2'와 '아이리스 2'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줬다.

그는 최근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 파격적인 연기로 아누스적인 매력을 발산했고, 이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32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배우는 배우다'는 개봉에 앞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받아 처음 공개된다.

빅뱅의 탑은 '동창생'으로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냉혹한 킬러,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 전쟁 속에 버려진 학도병을 맡아 강한 액션과 감성 연기를 동시에 선보인 바 있다.

'동창생'은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김유정)을 지키기 위해 남으로 내려가 공작원이 되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년의 운명을 그린 영화로, 탑은 고교생으로 위장한 공작원 리명훈 역을 맡아 강렬한 액션과 다양한 감정 연기를 소화했다. 영화사 측은 "이번 작품에서 탑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순호기자 suna@metroseoul.co.kr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0화 글·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흡혈 풍선은 아마

특수한 이끼 같은 전기분해해 나오는 수소가스를 이용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제 마취총을 이용해 마비시키면 분명 우리에겐 좋은 무기가 될 거에요

한번 해 봅시다!

빠지직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윤계상·고준희 로코물 '레드카펫' 크랭크업

윤계상(사진 오른쪽)·고준희(왼쪽)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레드카펫'이 모든 촬영을 마치고 개봉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주 경기 근교에서 이뤄진 마지막 촬영은 에로영화 전문 감독 정우(윤계상)와 아역스타 출신 여배우 은수(고준희)가 오해를 풀고 애틋한 감정을 주고받는 장면을 담았다. 이어 야간에는 정우 일행이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는 장면을 찍었다.

촬영 종료 후 윤계상은 "재미있는 동료들과 즐겁게 촬영했다"며 크랭크업 소감을 전했고, 고준희는 "첫 주연 영화이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조성준기자

송승헌 '인간중독' 주인공

송승헌(사진)이 멜로영화 '인간중독'의 주연을 맡는다.

23일 투자·배급사 뉴(NEW)에 따르면 송승헌은 베트남전이 배경인 이 영화에서 부하의 아내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는 대령 김진평을 연기한다. 송승헌은 "연출자인 김대우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던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와 '음란서생'의 강렬함과 '방자전'의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배우로서 정말 욕심나는 캐릭터"라고 소감을 밝혔다.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조성준기자 when@

한가위 1+1 빅이벤트

스타키보청기

대한민국 방방곡곡 온가족의 즐거운 소통을 위해!
지금 2013 스타키 신제품 **3시리즈를 구입하시면,**
블루투스 **음성 증폭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60만원 상당)

| 이벤트기간 : 2013년 9월 1일 ~ 10월 31일 |

Starkey.

02) 465-0999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3-277 스타키빌딩

날씨

9/24 火 일출시각 06 21 일몰시각 18 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서울 · 춘천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일교차가 커지면서 호흡기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에는 스카프나 목도리 등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이고 따뜻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패션 코리아와 메기 효과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추어탕은 보양식의 대명사다. 여름 더위를 이기고 싶은 사람에게, 겨울 추위를 견디고 싶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민물고기 중 하나다. 하지만 미꾸라지는 날렵한 모습,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게으르다. 보통 흙 속에 몸을 묻고 양분을 섭취하며 시간을 보낸다.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한 가지, 바로 천적 메기를 만났을 때다.

양식업자는 양식장 안에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는다. 미꾸라지는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게으른 생활을 접고 부지런히 몸살을 키우니 자연히 영양가 높은 식재료가 된다.

이를 두고 기업 경영에서는 '메기효과'라고 부른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기업이 만성적인 도에 빠져 정체됐을 때 임직원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는 성장과 변화의 채찍이다.

이새-ISAE 제공

밀라노 화이트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새(ISAE)와 엑조 파리(EKJO PARIS), 와일드 카라(WILD CARA)가 메기로 떠올랐다. 주최 측은 이들을 위한 특별전시관을 배정했는데 유럽과 북미는 물론 중동과 아시아에서 참가한 바이어에게까지 주목받으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달궜다고 반색했다. 특히 이새는 창의적 디자인과 컬러는 물론 소재까지 한국을 담아낸 명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패션은 상품으로서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치를 인정받는다.

반면 우수함의 수준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받는 게 현실이다. 시즌마다 열리는 세계적 컬렉션에 등장하는 패션 트렌드를 잘 따르지만 '같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흠잡을 곳 없는 상품이나 프리미엄은 아니라는 원칙을 넘어서는 모험은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 만들어졌다.

/[illegible]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2			8		6			
	1	6	5					
		7					5	6
1					7			
9		8				1		3
			2					9
8	9					2		
					1	3	7	
			4		5			1

	7		6			4	8	
1	3	8	4					
					7			5
9		5						
		6				7		
						8		2
2			8					
					5	2	6	3
	6	4			9		7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필 리오스 자유)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제화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자다가도 출근 이젠 지긋지긋 43세까지 힘들지만 이후 대운

변아이련 남자 76년 2월 25일 음력 제역

Q 중소기업 물류관리과에서 일하는데 밤이 물류관리지. 연일 지게차로 상자하느라고 야간 작업을 수없이 합니다. 자동차 모체의 라인이 끊어질 때는 새벽에도 잠자다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게 일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희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43세까지는 낙숫물에 바위가 파이듯 작은 돈이라도 모아 하나하나 쌓이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먼 재물이 엉겨서 다른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대가 한 형위에 이자까지 붙어 복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청룡반수(靑龍返首) 무릇 운이 돌아와 운이 상승하여 왕기(旺氣)의 포효로 심력과 권위가 뚜렷해지는 사주입니다. 직장운이 쇠지(衰地)에 있어 고단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44세 이후가 되면서 비로소 화창한 기운으로 재정적인 여유와 함께 심신도 편안하게 됩니다.

우유배달 10년 벗어나고 싶어 내년 이후에 사회복지사 도전

최이난 여자 82년 7월 12일 음력 오후 1시50분

Q 가정에 우유와 건강식 음료를 배달하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벌이도 적어 걱정입니다.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고 4대 보험까지 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을까요? 모아놓은 돈은 없고, 남편도 월약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A 생일에 인수(印綬 나를 생해주는 오행)는 지적 수준이 높고 총명함을 나타내며 중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학구열을 보입니다. 인정이 많고 똑똑하지만 식상(食傷 내가 생해주는 오행)의 부재로 추진력이 약하고 무슨 일을 주저하기 쉽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성과가 미약합니다.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는 힘든 세상이지만 편재(偏財)운이 좋게 흐르고 35세 이후엔 장래 진로문제와 인연이 생기니 직장운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홍보 재단을 찾아보거나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를 권합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 시험 본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겠지만 정규직에 굳센 직장으로 옮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어 도전해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4일(음 8월 2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실에 칠리소 생긴다. 60년생 뜻을 이루려면 편한 활은 멀리하라. 72년생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면 뜻밖의 이득 본다. 84년생 어른의 설득은 받아들여라.

소 — 49년생 체면 때문에 의무 방개지지 마라. 61년생 작은 것 나가고 큰 것 들어온다. 73년생 중심 잘 잡아 외풍에 흔들리지 마라. 85년생 원하는 정보 우연히 얻는다.

호랑이 — 50년생 일 앞세우면 껍데기만 남는다. 62년생 기회 왔을 때 강도 높여 출전하라. 74년생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른다. 86년생 대접할 일은 서두름수록 이득.

토끼 — 5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3년생 적절한 일 무사히 잘 넘긴다. 75년생 경쟁자와 함께 나아가야 산다. 87년생 처음 생각대로 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 얻는다.

용 — 52년생 재운이 터져 복은 들어온다. 64년생 대사를 앞두고 자신감 없으면 실패. 76년생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 나타난다. 88년생 공들인 이성이 마음의 문 연다.

뱀 — 53년생 고집은 적당할 때 꺾어라. 65년생 낙관했던 일에 변수 생긴다. 77년생 현실성 없어도 꿈은 포기하지 마라. 89년생 뜻밖의 귀인 만나서 야망을 키운다.

말 — 42년생 허거운 계획은 포기하는 게 좋다. 54년생 오라는 곳 많아 즐거운 비명. 66년생 원칙대로 해야 무리가 없다. 78년생 새로운 길을 찾는 도전 멈추지 마라.

양 — 43년생 실리에 조심. 55년생 문서 일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67년생 두려워하지 말고 돈키호테처럼 부딪쳐라. 79년생 정도 지키면 명분과 실리 모두 얻는다.

원숭이 — 44년생 뜻하지 않은 제의 받는다. 56년생 팔뚱귀 소지가 있는 일은 멀리하라. 68년생 돈 문제로 마음이 혼란스럽다. 80년생 애정 문제는 잘 풀리니 걱정 마라.

닭 — 45년생 착한 자녀 덕분에 유쾌한 하루. 57년생 지순이 못 유보미라 선물한다. 69년생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전진하라. 81년생 발표와 관련된 일은 순탄하다.

개 — 46년생 바쁘니 고민도 없어진다. 58년생 이웃사람과 어울리면 행복이 절로. 70년생 작은 것 소홀히 하면 큰 것 잃는다. 82년생 고난이 있어도 끝이 있어 행복.

돼지 — 47년생 공들인 것 남 주지 않도록 조심. 59년생 가족에게 진 빚 갚아 활기분. 71년생 당분간 새로운 일은 생각지도 마라. 83년생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좋다.

"윤세아 교화 모습 감동적" "가해학생 이미지 포장 어이없어"

'송포유' 시청자 반응 극과 극

추석 연휴에 방송된 SBS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가 엉뚱한 미화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승철과 엄정화의 지도로 합창단원이 되며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21·22일 1회와 2회가 방영된 후 시청자들로부터 극과 극의 반응을 얻었다.

문제아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반면, 과거 폭행 사실을 무용담처럼 내보내 거센 반발도 샀다. 제작진은 "아이들을 땅에 묻은 적도 있다"는 등 일부 학생들의 경험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폭행 피해 학생임을 주장하며 "방송에서 가해 학생을 다른 이미지로 포장하는 게 어이가 없어 울었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승철은 2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새 희망을 주고자 출연했다"면서 본인이 전과 9범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다. 어떻게 고교생이 전과 9범이 되나"고 해명했다. /탁진현기자

"윤아 눈빛연기 배우고파"

'열애'로 배우 도전하는 서현

SBS 새 주말극 '열애'로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소녀시대 서현이 신인 배우로서 각오를 밝혔다.

본명인 서주현으로 연기자로 나서는 서현은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경력은 있지만 연기는 처음이다. 신인 배우인 만큼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의 갈등과 운명으로 인해 비극을 겪게 되는 세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치열한 성공을 다룬 이 드라마에서 그는 청초한 외모에 따스한 마음, 명철한 머리까지 갖춘 수의학과 여대생 한유림 역을 맡았다. 강무열(성훈)의 아역인 이원근과 호흡을 맞춰 풋풋하고 싱그러운 첫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이다.

SBS '열애' 제작발표회에서 커플 포즈를 취하는 이원근(왼쪽)과 서현 /뉴시스

팀 멤버인 윤아·수영·유리·제시카에 이어 뒤늦게 드라마에 데뷔하게 된 서현은 "어릴 때부터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고 오래갈 수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 성급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연기를 해보니 너무 재미있다. 선배들에게 많이 배워가면서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윤아 언니의 눈빛, 수영 언니의 자연스러운 대사톤, 유리 언니의 몸연기도, 제시카 언니의 대본팁을 배우고 싶다"고 멤버들의 연기 장점을 설명한 뒤 "연기자로 데뷔하지 않은 멤버 중에는 효연 언니가 연기를 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원근은 "친화력이 뛰어나다. 촬영장의 해피 바이러스"라며 상대역인 서현을 칭찬했다.

이 밖에 이 드라마에는 전광렬·성훈·최윤영·황신혜 등이 출연한다. 첫 방송은 28일.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이효리 섹시미 어디가겠어 이효리가 결혼 후 첫 뷰티 화보를 통해 한층 업이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 '키스 더 라이트'라는 주제로 촬영한 한 패션 월간지 화보에서 가슴골이 드러나는 재킷 차림과 붉은 립스틱으로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다.

▶ "살아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유순호기자

김재중 첫 솔로 정규앨범

JYJ 김재중이 다음달 말 첫 솔로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1월 미니앨범을 발표해 리패키지 앨범까지 총 20만 장을 완판시켜 첫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미니앨범이 로커 김재중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면 정규 1집은 보컬리스트로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앨범을 발표하고 아시아 7개 도시 투어를 진행했던 김재중은 이번 앨범 출시 후에도 투어로 국내외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 그는 막바지 녹음 작업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연예인 주식부자>

양현석 373억 줄어도 1위

1973억 보유… 이수만·배용준·박진영 뒤이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연예인 주식 부자 1위를 지켰다.

2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양 대표는 보유 주식 평가액 1973억9000만원으로 1위를 고수했다. 그러나 연초에 비하면 11.4%(373억3000만원)가 줄어들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과 키이스트의 대주주인 배용준은 1576억9000만원과 306억6000만원으로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 회장도 연초보다 19.1%(373억3000만원) 감소했지만, 배용준은 키이스트의 주가 상승으로 20.3%(51억7000만원) 늘었다.

이 밖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대표와 SM C&C 주식을 보유한 장동건이 72억3000만원과 37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벌닷컴은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 지분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연예인은 모두 9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SM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보다 14.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2.9%나 급감한 반면, YG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8.5%와 56.8% 증가했다.

키이스트와 JYP는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송소라기자 sura@metroseoul.co.kr

탈에 홀리고, 춤에 열광하고…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제43회 안동민속축제

CNN이 '가을, 한국 찾아야할 이유'로 꼽은 축제
27일부터 열흘간 18개국 세계인과 '열정 대방출'

가슴 뛰는 축제의 즐거움, 열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의 벅찬 감동.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하 탈춤축제)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경북 안동시 탈춤공원과 하회마을에서 펼쳐진다.

인류는 탈을 착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왔는데 이번 탈춤축제 역시 신명이 펼쳐지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꿈꾸는 세상, 영웅의 탄생'을 만들어간다. 같은 꿈을 꾸는 18개국(러시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 등) 세계인들도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탈판에 함께 한다.

내 탈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축제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모든 탈이 있는 '마스크샵'에서 탈을 만들거나 구입할 수 있다. 탈에 따라 자연스럽게 꾸미게 되는 의상 역시 마스크샵에서 구매 혹은 대여해 축제장을 마음껏 누빌 수 있다.

새로운 경험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해줄 축제의 공식 댄스 '탈랄라 댄스' 역시 기다리고 있다. 나만의 탈을 쓰고 축제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가슴 터질 듯한 음악과 함께 탈랄라 댄스를 추는 축제, 생각만으로 즐겁다.

세계탈놀이경연대회도 놓칠 수 없다. 댄스, 마임, 퍼포먼스, 드라마 등 사람들과 다양한 춤이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드높여줄 한마당이다. 1만 명이 함께 모인 '탈놀이 대동난장'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탈춤의 생명감을 안겨줄 것이다. 세계 60개국 500여 점의 탈이 전시된 '세계탈 전시회' 등도 마련됐다.

외국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축제는 탈춤축제다. 미국 CNN go에서는 가을철 한국을 찾아야 할 10가지 이유 중 하나로 탈춤축제를 꼽기도 했다. 탈을 만드는 즐거움, 탈을 쓰며 느끼는 오묘함, 탈춤을 추며 느끼는 폭발적 경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탈춤축제, 그 흥미로운 장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illegible]기자

왼쪽부터 지난해 축제에 참가한 중국 운남성 공연팀,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될 대만극 소라섬 이야기

권영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이사장(안동시장)

격식 훌훌 '신명 한마당'

탈을 쓰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사회적 격식이 없어짐으로써 인간 본성의 신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즐거움과 경험을 이 탈춤축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표 탈춤인 하회탈춤을 비롯해 문화재로 지정된 12개의 전통 탈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18개국의 외국 탈놀이 공연단도 함께합니다. 보다 다양한 나라의 탈과 탈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탈의 매력을 이어받은 마당극과 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마당, 탈놀이 체험마당, 국내외 탈춤 책우기, 축제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리와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탈을 쓴 사람들의 춤과 놀이의 경연,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등 동재, '1만명의 대동마당'이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10일간 700여 개의 공연과 전시를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뛰고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탈춤축제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안동,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탈춤이 가진 즐거움과 즐거움이 주는 신명을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겠습니다. 이 즐거움이 다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스포츠 인기브랜드 '할인 빅리그'

온라인몰 아웃도어스 최대 70% 세일 행사

여외 활동이 잦은 가을철을 맞이 아웃도어스가 다양한 스포츠 아이템을 '초특가'에 선보인다.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는 29일까지 스포츠 의류와 용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브랜드 빅리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스포츠 브랜드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헤드(HEAD)·이엑스알(EXR)·미즈노(MIZUNO) 등 3개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와 슈즈를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5~20% 할인 쿠폰을 나눠주고, 아웃도어스 바로 가기 접속 시에는 1%를 바로 할인해준다. 이 밖에 KB카드 결제 시 구매 금액별로 5000원 또는 7000원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이키·뉴발란스 등 베스트 슈즈 초특가전

2013 베스트 슈즈 초특가전도 마련됐다.

나이키, 뉴발란스, 푸마는 운동화와 러닝화를, 프로스펙스는 '연아슈즈'를 앞세워 워킹화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예정이다.

데상트, 르꼬끄 스포르티브는 스포츠 종합 브랜드답게 올가을·겨울 트렌드에 맞는 스포츠 의류와 슈즈, 가방 등을 위주로 선보인다.

아웃도어스닷컴 정수영 MD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운동용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구성했다"며 "특히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의 www.outdoors.com /[illegible]기자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 손짓

강강술래 홀피 경품행사 이달말까지 신청글 접수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 연휴 고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두 사람에게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과 신송식품의 '추석 컵밥'(12인)을 무료로 증정한다.

'아가씨와 건달들'은 1929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명의 청춘 남녀가 사랑과 명예, 꿈을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를 코믹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류수영, 김사우, 이하늬 등이 출연해 화제몰이 중이다.

신송식품의 '컵 국밥' 형태의 '즉석 컵밥 3종'은 소고기육개장, 소고기된장국, 북엇국으로 구성돼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는 물론 간편한 식사를 즐기는 직장인, 학생들에게 좋다.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여행길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힐링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찰진 우떡갈비(1세트)와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2세트)로 구성된 힐링세트 A는 2만6400원(40% 할인), 한우양념불고기(900g)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힐링세트 B는 3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환절기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다용량 세트(800ml·5팩, 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 10인분)는 2만2900원에 판매한다.

삼성 4년연속 '가을야구'

롯데 두산 꺾고 'PO 갈까?'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정규리그·한국시리즈 3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롯데는 전날 설욕을 만회하며 가을 야구에 한 발 다가섰다.

삼성은 23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채태인의 역전 투런포와 불펜의 철벽 계투를 엮어 4-1로 이겼다.

삼성은 이날까지 70승 2무 47패를 올리며 남은 9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4위를 확보했다. 전날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2위 LG 트윈스에 이어 두 번째로 가을 잔치 출전을 결정지었다.

6연승을 달린 삼성은 이날 경기가 없던 LG와의 승차를 다시 0.5경기로 벌렸다.

삼성은 단일 시즌 체제가 도입돼 현재 포스트시즌 제도가 자리잡은 1989년 이래 21차례나 가을 잔치 무대를 밟아 최고 명문구단의 위치를 지켜왔다. 삼성이 포스트시즌에서 빠진 해는 1994~1996년, 2009년 등 4번뿐이다.

롯데는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6안타를 몰아쳐 10-3으로 크게 이기고 하룻만에 6위에서 다시 5위로 올라섰다. 전날 어이없는 실책으로 넥센에 끝내기 패배를 당했으나 4위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 잠실

롯데	000	500	500	10
두산	200	001	000	3

■ 대구

한화	010	000	000	1
삼성	000	200	02X	4

스텐손 1000만달러 사나이

스텐손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AP 뉴시스

헨릭 스텐손(스웨덴)이 2013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스텐손은 23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이고 합계 13언더파 267타를 적어냈다.

1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조던 스피스와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10언더파 270타)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린 스텐손은 우승 상금 144만 달러(약 15억5000만원)와 보너스 상금(약 108억원)을 동시에 쓸어담는 대박을 터뜨렸고,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치면서 1위에 올랐다.

한편 우즈는 PGA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illegible] 90점으로 개인 통산 11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조성준기자

환상의 뒤집기 류한수가 23일 열린 2013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전에서 이슬람베카 알비예프(러시아)에게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AP 뉴시스

레슬링 14년만에 金 캤다

김현우·류한수 세계선수권서 나란히 금메달

지난해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25·삼성생명)와 떠오르는 유망주 류한수(25·상무)가 2013 시니어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14년 만에 나란히 금을 캤다.

김현우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남자 그레코로만형 74kg급 결승에서 로만 블라소프(러시아)를 2-1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김현우는 런던올림픽 66kg급에서 한 체급을 올리자마자 2011년 세계선수권과 런던올림픽을 차례로 제패한 최강자 블라소프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같은 날 66kg급의 류한수는 이슬람베카 알비예프(러시아)를 5-3으로 제압했다. 알비예프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던 강호다.

이로써 한국 레슬링은 1999년 김인섭, 손상필, 김우용을 마지막으로 끊겼던 세계선수권에서 부활을 알렸고,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예고했다.

/조성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넣고 돕고… 박지성 '킬러본능'

아약스전 1골 1도움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이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박지성은 22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1부리그) 7라운드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에인트호번은 라이벌 아약스를 4-0으로 대파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에인트호번은 후반 8분 팀 마타브즈의 골을 시작으로 아약스를 몰아붙였다. 후반 16분 제트로 빌렘스가 페널티지역 정면까지 돌파한 후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리고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박지성은 후반 19분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다 가운데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오스카 힐리에마르크가 골로 연결해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박지성은 후반 23분 수비 진영에서 넘어온 공을 잡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유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 get out of bed at about 7 o'clock every morning. 시간 순서대로 일상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m always tired when I come home from work.
B 아침에 대개 몇 시에 일어나는데?
A 난 매일 아침 7시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B That's pretty early. Why do you get up so early?
A I need to eat my breakfast and get dressed.

정답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in the morning? / I get out of bed at about 7 o'clock every morning.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dress
옷을 입히다

dress는 '옷을 입히다'나 '옷을 차려 입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에 get을 붙이서 get dressed라고 하면 옷을 차려 입는 과정을 중시하는 표현이 되죠. 정장을 차려 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잠옷이나 운동복 등 편한 복장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be dressed up이라고 하면 평소보다 더 차려 입은 상태를 뜻합니다.

ex You're all dressed up. What's the occasion?
옷을 잘 차려 입었네! 오늘 무슨 일 있어?

시간 전치사 in

▶ in은 때를 나타낼 때 '~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연도, 세기	in 2011 2011년에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계절	in (the) spring/summer/fall/winter 봄/여름/가을/겨울에
월	in May 5월에 in October 10월에
오전, 오후, 저녁	in the morning/afternoon/evening 오전/오후/저녁에

▶ 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He was born in 2010. 그는 2010년에 태어났어요.
2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3 Her birthday is in February. 그녀의 생일은 2월이에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sales invoice contains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_______ by the buyer and seller.
(A) agreeing upon (B) agreement
(C) agree (D) agreed to

02 Director Kawamura's _______ is that those with expertise in the field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al hiring decision.
(A) position (B) function
(C) classification (D) location

01. 매출 송장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의해 합의된 모든 조건들이 들어있다
해설 [illegible] contains가 있기 때문에 [illegible]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뒤의 [illegible]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agreed to by ~ [illegible] (D) agreed to 를 써야 한다
어휘 sales invoice 매출 송장 contain ~이 들어 있다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정답 (D) agreed to

02 카와무라 이사의 견해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종 채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illegible] (A) position을 [illegible]
어휘 expertise 전문성, 전문 지식 be responsible for ~을 책임지다 function 기능 classification 분류 location 위치
정답 (A) position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시장/상점/식당
pay at the counter 계산대에서 지불하다
look around 주변을 둘러 보다
serve food to the customer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다
toast with wine [illegible]
hold a drink 음료를 들다

거리/공원/역
walk along the path 길을 따라 걷다
stand in a group 무리 지어 서다
perform on the stage 무대에서 공연하다
walk in the crosswalk 횡단보도를 [illegible]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물가/해변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다
play in the water 물에서 놀다
ride a boat [illegible]
suntan on the beach 해변에서 일광욕하다
wear a swimsuit 수영복을 입다

행운은 주말馬다
[말 마]
우리 인생 최고의 행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아닐까요?
행운은 그리 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가족모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행운과 함께하는 가까운 곳 -
부산경남경마공원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편자(horseshoe). 앞발편자는 행운을 끌어모으고, 뒷발편자는 액운을 털쳐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RA 부산경남경마공원
www.kra.co.kr